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YahooFinance: 미 노동시장 안정세...신규 실업청구권 소폭 상승

[미국 금융]

- WSJ: 트레이더들, '관세 환급 청구권' 거래한다
- Bloomberg: 최강 엔비디아 놀라운 실적에도 시장 반응 미온적일까?

[물류]

- WSJ: 해운 업계, 올해 강력한 수요 신호
- Bloomberg: 트럼프 관세 기간에 롱비치 수입 물량 13% 감소

[미국 생활]

- WSJ: 미국인들 해외로 많이 떠난다

[트럼프 행정부]

- CNNBusiness: 미 행정부, 은행에 계좌 개설 고객의 시민권 확인 요구 검토

[오일]

- YahooFinance: 오일가 하락...오만 “미 이란 회담 긍정적” 평가

[비즈니스와 기업동]

- YahooFinance: 고객 불만에 버거킹 메뉴 ‘Whopper’ 바뀐다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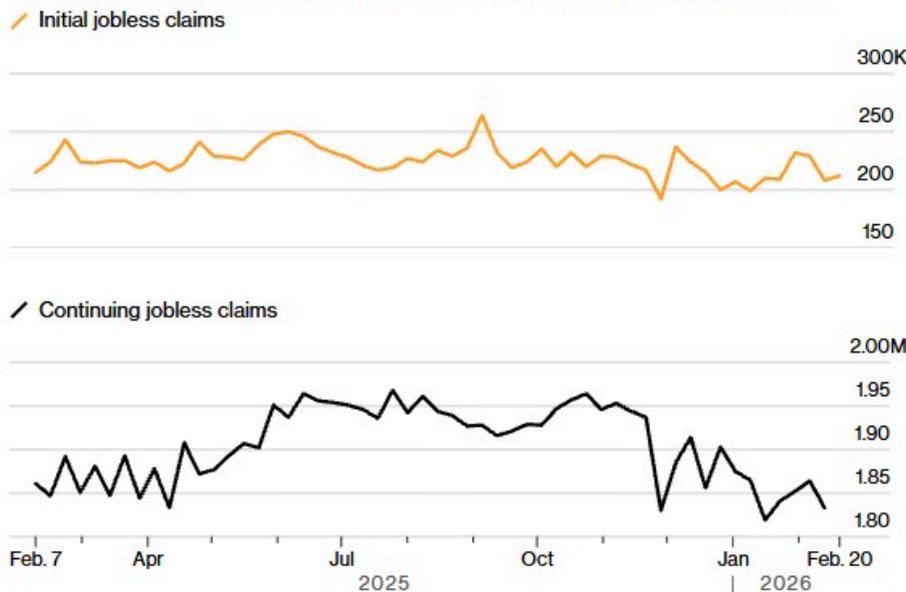
**YahooFinance: US weekly jobless claims increase marginally as labor market stabilizes**

**미 노동시장 안정세...신규 실업청구권 소폭 상승**

- 미 노동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약간 증가하고 2월 실업률은 변동이 없었다.
- 2월 21일 끝나는 주간에 미 신규 실업청구 건수는 4천 건 오른 21만 2천 건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치는 21만 5천 건이었다.
- 이번 수치는 지난주 연방 공휴일 ‘대통령의 날’의 영향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동시장은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불확실한 가운데 일시 불안정한 상황을 보였으나 현재는 안정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 전체 실업청구 건수는 3만 1천 개가 낮아진 총 1백83만 3천 건으로 나타났다

## US Initial Jobless Claims Edge Higher in Holiday Week

Recurring applications declined to 1.83 million in the previous week



### [미국 금융]

기사

#### WSJ: Wall Street Traders Are Pouncing on the Tariff Refund Chaos 트레이더들, '관세 환급 청구권' 거래한다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나중에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권리'를 사고파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다.
- 중개인들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전에는 1달러당 20센트에 불과했던 관세 환급 청구권 가격이 판결 이후 약 40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 어떤 기업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우려해 할인된 가격에라도 당장 환급 권리를 팔아 현금을 챙기려 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나중에 전액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버티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 환급 청구권 시장은 정부의 관세 부과가 정당인지 소송이 진행될 때, 기업들은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미지수라 미리 그 같은 권리를 판매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기업들이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활용해 그 권리를 싸게 구입해 미래에 차익을 남기려는 목적이다.

기사

#### Bloomberg: Nvidia's Upbeat Sales Forecast Gets Lackluster Investor Response

##### 최강 엔비디아 놀라운 실적에도 시장 반응 미온적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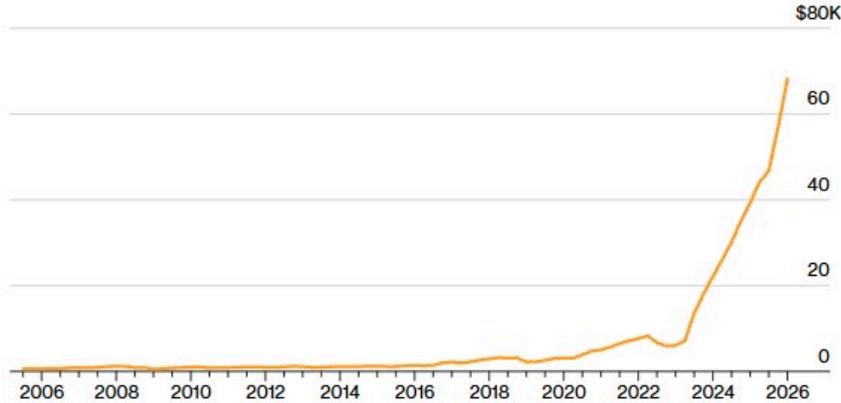
- 이제 수요일 장 마감 이후 놀라운 실적을 발표한 AI 반도체의 최강자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늘 목요일 3% 이상 하락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향후 AI 전망의 풍향계라 할 수 있다.

- 엔비디아는 지난 1년동안 44%나 주가가 상승했으나 투자자들은 이제 단순한 성장을 넘어, 이러한 'AI 투자붐'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AI 투자 열풍이 향후 몇 년 뒤에도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AI의 역할이 모델 훈련 단계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실행하는 추론(Inference)으로 넘어갈 때도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이슈와 관련 서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 Nvidia's Unprecedented Growth Surge

Investors have worried that the pace of increases can't continue

📈 Nvidia quarterly sales, in millions



Source: Bloomberg

기사

### [물류]

#### WSJ: Shipping Industry Sends Strong Consumer Demand Signal For The Year

##### 해운 업계, 올해 강력한 수요 신호

- 현재 해상 비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가 안좋아서보다 해상 공급이 수요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 미국 수입업체들이 하락하는 변동 운임 상황속에서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기대하며 2026년 해상 운송 계약 협상에 나서고 있다.
- 해운 전문가들은 컨테이너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수입업체들이 전년 대비 10%에서 15% 더 낮은 계약 운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 한편 LA항만은 2026년 초 물동량이 2025년 수준(미래 물동량 크게 수입 한에 해)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미소매협회(NRF)는 2026년 상반기 전국 수입 물동량이 약 2%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사

#### Bloomberg: Port of Long Beach Imports Fall 13% Under Tumult of Trade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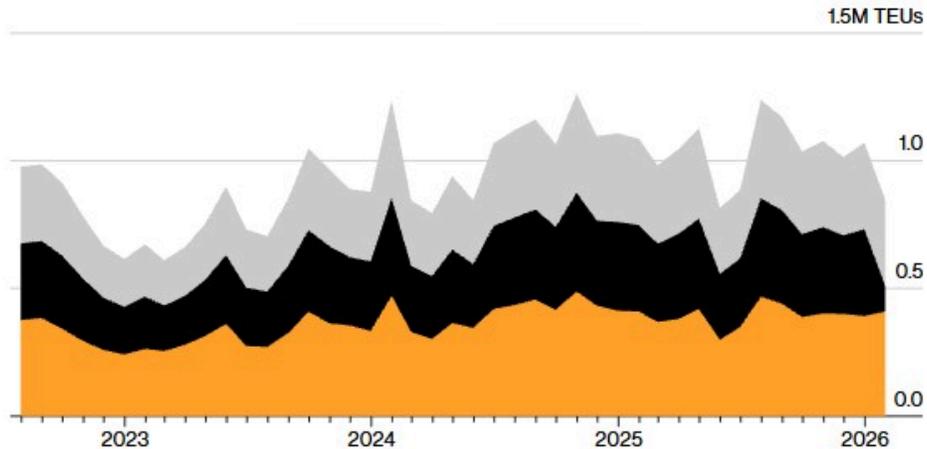
##### 트럼프 관세 기간에 롱비치 수입 물량 13% 감소

-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만을 통해 들어온 물동량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달의 경우는 총 물동량이 11% 감소했으나 LA항만의 물동량을 초과해 미국에서 가장 활발했던 항만으로 나타났다.
- 현재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인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으로 공급망이 예측이 힘들고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 Port of Long Beach Imports Drop 13% in January

Total container volumes fell 11% last month as trade war bites

■ Imports ■ Exports ■ Empties



Source: Port of Long Beach data compiled by Bloomberg  
Note: TEUs = 20-foot container equivalent units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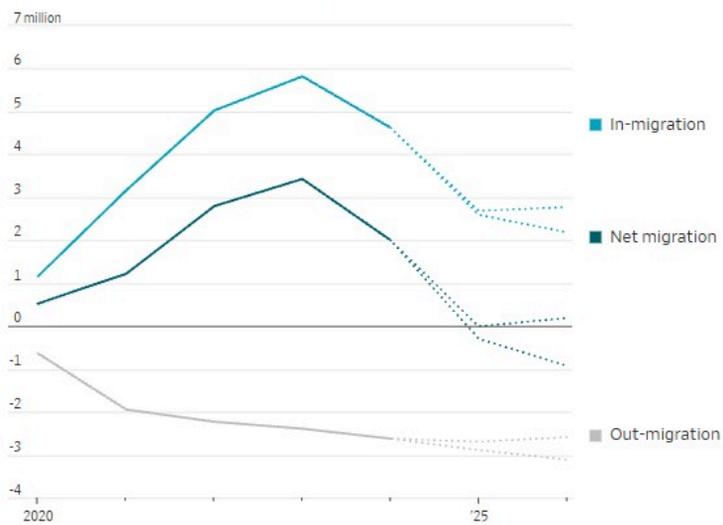
## [미국 생활]

### WSJ: Americans Are Leaving the U.S. in Record Numbers

미국인들 해외로 많이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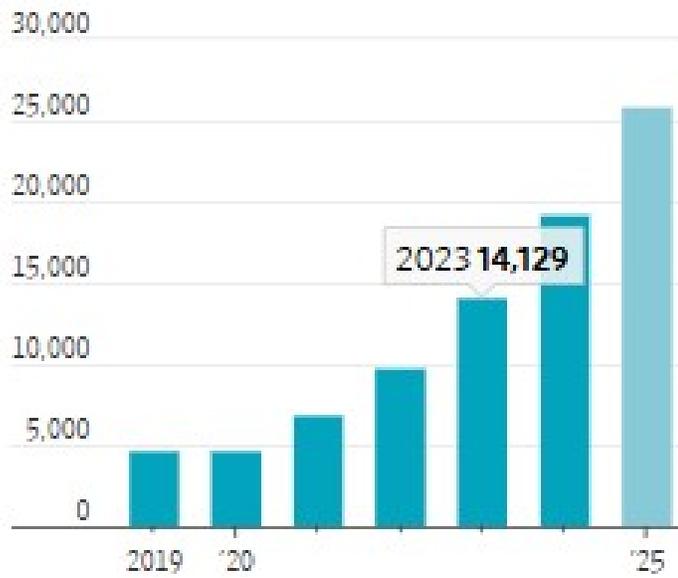
- 높은 물가와 안전 문제에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으로 인해 물가가 싼 해외로 이주하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
- 이들은 정착지로 유럽의 경우 포르투갈 리스본이나 아일랜드 더블린, 그리고 발리, 태국, 콜롬비아 등으로 이주하고 있다.
-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인 15만명 인구가 지난해에 미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물론 미국으로의 유입 인구는 많다. 그러나 지난해 유입 추정인구는 2백50만명에서 2백60만명으로 지난 2023년의 6백만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 Migration flows, with low and high immigration projections



Source: Brookings Instit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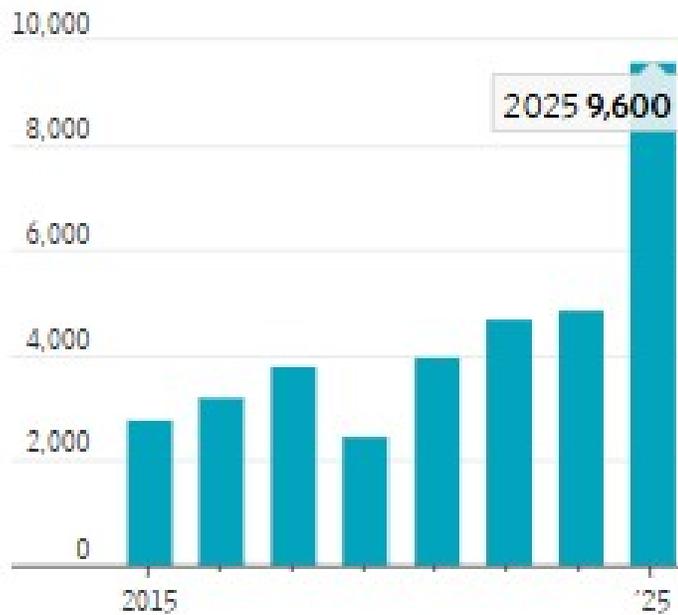
### U.S. citizens resident in Portugal



Note: 2025 are estimates.

Source: AIMA, Agency for Integration, Migration and Asylum (Portuguese government)

### Americans moving to Ireland



Note: Data not available for 2016, 2018 and 2020.

Source: Ireland Central Statistics Office

[기사](#)

[트럼프 행정부]

## CNNBusiness: Trump administration considers forcing banks to verify customers' citizenship

### 트럼프 행정부, 은행에 계좌 개설 고객의 시민권 확인 요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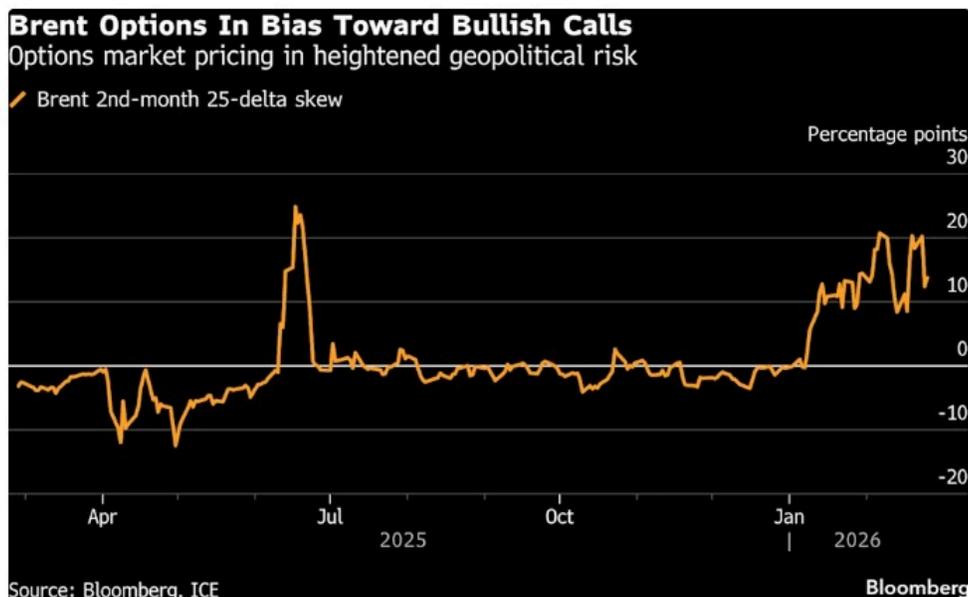
-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을 통해서도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기존에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하긴 했지만, 시민권자 여부를 증명하는 여권, 출생증명서 등까지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번 방안은 연방 의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즉시 시행하려는 행정명령의 방식을 검토하고 검토하고 있다.
- 은행 업계는 은행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 정부의 이민 단속이나 추방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사

## [오일]

### YahooFinance: Oil Retreats as Oman Describes US-Iran Talks as Positive 오일가 하락...오만 “미 이란 회담 긍정적” 평가

-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중재하는 오만이 “양국 회담은 지금까지 긍정적이며 오늘 목요일에도 계속된다”라고 긍정 평가하는 가운데 오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브렌트유는 배럴당 69달러로 하락했다.
- 양국은 제네바에서 핵무기 관련 3차 회담을 갖고 있다. 현재 트럼프가 협상 종결 마감일을 수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

## YahooFinance: Customers complained. So Burger King updated its Whopper

### 고객 불만에 버거킹 메뉴 'Whopper' 바뀐다

- "Whopper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Burger King이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을 받아들여, 거의 10년 만에 베스트셀러 메뉴인 Whopper를 처음으로 바꾼다.
- 기존 햄버거 빵을 더욱 고급스럽게 바꾸고, 마요네즈를 새롭고 더 부드러운 걸로 사용하며 종이 포장지 대신 박스에 담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버그는 이번 주부터 전국 7,000개 이상의 매장에서 선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버거가 뭉개지거나(smashed) 모양이 부서진다는 수년간의 불만 끝에 나온 개선책이다.

기사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